

2026년 제 12회 미술사학대회 주제 해설

〈미술사와 해양: 흐르는 물질과 경계〉

최근 미술 현장에서는 ‘물’과 ‘해양’을 행성과 지구를 사유하기 위한 하나의 은유이자, 동시에 특정한 힘과 방법으로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지속되는 격리와 개발, 파괴와 침략의 현실 속에 유동과 순환, 저항과 공존, 연대와 돌봄의 가능성을 품은 ‘부드러운 지구’를 상상하고 실천하려는 담론적 모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생태 위기, 이주와 디아스포라, 인프라와 기술, 기억과 정동의 문제를 가로지르며, 바다를 기후 변화와 해양 생태 붕괴, 글로벌 물류와 데이터 인프라, 난민과 표류, 재난과 상실의 기억이 중첩된 정치적·물질적 공간으로 재조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양은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기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관계적 조건이자 행위적 장으로 제시되며, 기존 미술사적 범주와 서술 방식에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사학과 미술사 연구에서도 실제 해양을 하나의 새로운 관점이자 방법으로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미술사는 대륙, 영토, 국가, 문명과 같은 고정된 단위를 중심으로 서술되며, 중심과 주변, 선진과 후진이라는 위계적 구조를 전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예술의 이동과 혼종, 물질의 순환, 비가시적 연결망은 부차적 요소로 간주되고, 물질과 기술의 이동, 노동과 폭력, 생태 환경의 변화와 같은 실제 역사적 조건은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등장한 해양사, 글로벌 히스토리, 이동성과 네트워크 연구, 블루 인문학 등은 바다를 국경을 넘는 교류의 통로이자, 물질·기술·노동·폭력이 축적된 역사적 공간,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이 얽히는 생태적 조건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술은 고정된 장소의 산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질과 관계 속에서 형성된 과정으로 이해되며, 예술과 이미지, 물질과 기술이 해양을 통해 어떻게 생성·이동·번역되어 왔는지가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해양을 매개로 한 교역·표류·이주·식민·저항의 역사 속에 예술이 단일한 기원이나 순수한 전통의 산물이 아니라, 번역과 혼종, 충돌과 공존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사 중심의 미술사 서술은 물론 지역사와 세계사를 조직해 온 기존의 서술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고, 탈중심적·비위계적 관점에서 이를 돌이켜보는 이론적 계기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해양적 관점을 생태 및 신유물론적 사유와 연결해 자원과 에너지, 생명체와 인공물의 순환이 예술의 재료와 형식, 보존과 전시의 윤리에까지 관여하는 물질적 조건임을 성찰하고, 인간과 비인간을 포괄하는 확장된 미술사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대회는 해양을 매개로 전개된 미술과 시각문화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 축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1) 세계관과 인식' 세션에서는 주로 전근대 미술에서 해양이 세계를 인식하고 질서를 구성하는 인식의 장으로 기능해 온 방식을 고찰합니다. 서구 고대에서 바다는 신화와 우주론의 공간으로 상상되었으며, 중세에는 신의 섭리와 미지의 세계를 잇는 상상적 네트워크로 기능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해양은 도교적 자연관과 불교적 세계관이 교차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사상과 도상이 이동·변형되는 인식적 조건을 형성했습니다.

두번째 '2) 사건과 경험' 세션에서는 근세 이후 해양이 역사적 사건과 집단적 경험이 축적되는 공간으로 전환된 과정을 다룹니다. 동서 교역과 해상 네트워크의 확장은 항구를 문화적 접촉지대로 만들었고, 항해술과 지도학의 발달은 해양을 측량·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재편하며 비대칭적 근대 질서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19세기 이후 해양은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저항과 근대화의 모순이 중첩된 공간이 되었으며, 표류와 이산, 경계인의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본 세션은 해양을 매개로 발생한 사건과 충돌, 재난과 폭력의 기억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3) 교류와 이동' 세션은 시각 예술과 문화 형성 과정에서 해양이 이동과 교역, 네트워크와 번역, 혼종의 구조로 기능해 온 양상을 고찰합니다. 도자와 안료, 도상과 기술의 이동에서 근세 이후 해상 네트워크의 확장, 20세기 이주와 디아스포라, 동시대 글로벌 물류와 데이터 인프라, 생태 위기에 이르기까지 해양을 관계적 과정으로 재조명하며, 예술과 이미지가 형성·변형·전파되어 온 조건을 장기적이고 형성적인 미술사의 시야에서 살펴봅니다.

이처럼 본 대회는 해양을 하나의 관점이자 방법으로 삼아, 미술사를 다시 성찰하고 서술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윤리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접근 예시】:

- 그리스 도기·로마 벽화에 나타난 항해·항구·해상 교역 이미지 연구
 - 동아시아 회화·공예의 동해(東海)·삼신산(三神山)·용왕 등 신화적 바다 도상 연구
 - 불교 미술의 고험(苦海)·윤회·관음보살과 해양 신앙 이미지 연구
 - 중세 서구 미술의 해상 교류 속 이슬람·비잔티움 이미지 연구
 - 중국 남조·한반도·일본·동남아 해상 미술 교류 연구
 -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도자·안료·도상 이동과 지역 미술 연구
 - 수중 고고학과 난파선의 시각적·물질문화 연구
 - 류큐(琉球) 왕국과 동남아시아 간 도자 교역과 해양 네트워크 연구
 - 남만(南蠻) 병풍에 나타난 초기 동서 해양 접촉과 외래 이미지 연구
 - 17-19세기 해양 제국의 해양화(Marine Painting)와 제국 시각문화 연구
 - 항구 노동·선원 문화의 이미지와 계급 표상 연구
 - 표류·조난 기록화와 지도에 나타난 항해와 경계 경험 연구
 - 청일·러일전쟁 해전도와 근대 해양 군사 미학 연구
 - 개항기 항구 도시의 시각문화와 ‘접촉지대(contact zone)’ 미술 연구
 - 해양 이주와 경계인의 시각문화, 디아스포라 연구
 - 섬을 매개로 한 주변성·고립·연결성의 미술 연구
 - 오키나와 전쟁의 폐허·기억 투쟁과 해양 애도 미학 연구
 - 제주 해양 노동과 국가 폭력의 기억을 다룬 미술 연구
 - ‘검은 대서양(Black Atlantic)’ 문제 의식을 잇는 반(反)민족주의 문화 정체성 연구
 - 해양 오염·기후 위기를 다룬 현대·동시대 미술 연구
 - 항구·항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해양 미술사 방법론 연구
 - 바다를 매개로 한 인간-비인간·자연-기술 관계 연구
 - ‘블루 인문학(Blue Humanities)’과 탈육지·탈인간 중심 미술사 연구
 - 물·파도·흐름의 행위성과 액체적 물질성 미학 연구
 - ‘워터 헤리티지(Water Heritage)’를 통한 해양 생태와 윤리적 미학 연구
- 등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